

단국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인문 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중도 퇴실할 경우 결시 처리).
2. 답안 작성란에 개인 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생 인적 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연필, 샤프 사용 금지)
4.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 부호 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감독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55점)

-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5점)
- 2) [가]와 [나]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사회를 위하여 [다]의 (자료1)~(자료4)에서 제시한 방안을 각각 설명하시오. (350자 내외) (20점)
- 3)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와 [마]의 등장인물 '보위부 군관'과 '아빠'의 문제점을 설명하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서술하고, [다]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인들이 자유로이 넘나들어야 할 군사분계선은 슬한 영혼들이 죽어간 거대 무덤이었다. 그 세계무덤으로부터 기나긴 세계열전·세계냉전·정전체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평화를 향한 새순과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

.....(중략).....

대체 평화란 무엇인가? 인간들의 삶에 필요한 요소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선택재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재로 나눈다면 평화는 단연 후자다. 필수재를 잃고도 선택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평화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평화는 내면평화(영혼평화)와 외면평화(실존평화), 개인평화와 사회평화, 나라평화와 세계평화로 구성된다. 이 여섯 평화들은 궁극적으로 개별 생명의 평화를 보장하는 인간평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즉 평화는 인간평화(*pax humanus*)여야 한다. 개별 생명의 평화는 또한 모든 사람의 평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평화(*pax universalis*)다.

.....(중략).....

지금 평화가 오고 있다. 혼신을 다해 이 평화 기회를 인간평화와 보편평화로 완성하자. 정녕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자.

출처: 『한반도평화만들기』, 2018. 5. 16. (출제진 재구성)

[나]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국내외적으로 전쟁, 분쟁, 테러, 범죄,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한편, 적극적 평화는 이러한 직접적 폭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 등의 직접적 폭력은 물론 기아, 빈곤, 억압 및 차별과 같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중략) ...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인 소극적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구조적 폭력: 사회 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을 말함. 빈곤,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종 탄압, 종교, 이념, 지역, 세대, 노사 간의 갈등을 포함함.

* 문화적 폭력: 종교·사상·언어·예술·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말함.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자료1)

묵자(墨子)는 전쟁과 같은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뜻하는 불상애(不相愛) 때문이며, 불상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차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별애(別愛)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묵자는 별애와 반대되는 차별 없는 보편적 사랑을 의미하는 겸애(兼愛)를 하면 혼란과 갈등이 없어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중략)… 자신을 위하듯 남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듯 남의 나라를 위한다면, 온 세상이 이로워져 결국 그 이익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가 이루어지면,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짐을 뜻하는 교리(交利)가 따르게 된다는 겸애 교리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출처: 전종희 외, 『2026학년도 EBS 수능완성 독서·문학·화법과 작문』
(출제진 재구성)

(자료2)

에라스무스(Erasmus)는 불화와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탐욕과 야망을 지적한다. 그는 “권세와 명예와 부와 보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확립될 수 없다.”라고 하며 전쟁이란 전투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 전반에서 생기는 각종 불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중략)… 반면 평화는 인간 상호 간의 우애로, 모든 선의 근원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이성과 신앙에 따라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한다. 또한 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학자, 성직자 등이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돕는 중재 제도를 제안한다.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출제진 재구성)

(자료3)

칸트(Kant)는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구 평화 조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국가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통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공화 정체인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셋째,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처럼 칸트는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국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 연맹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 연방 체제: 국가 간 전쟁 억제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법이 적용되는 체제.
* 보편적 우호의 조건: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자료4)

볼테르(Voltaire)는 『관용론』에서 자연*이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당신네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어 그 육체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

들은 무지하므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신들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오. …(중략)… 당신네 인간들이 걸핏하면 벌이는 잔인한 전쟁, 과오와 우연과 불행이 펼쳐지는 영원한 무대인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오직 나 자연만이 당신들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서로 간의 필요로 결합하게 할 수 있소.”

* 자연: 볼테르가 말하는 자연은 보편적인 이성을 뜻함. 보편적인 이성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출처: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라] [앞부분 줄거리] 과거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겨우 탈출하여 돌아온다. 그런데 오빠는 속속들이 망가져 있었다. 전세가 불리해져 피란을 갈 상황에 처한 가족은 예전에 살던 현저동에 숨어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이닥친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된다.

그 후 그들은 겪음 내기로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중엔 보위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하고 천연덕스럽게 고향 이야기나 처자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빠를 노려보면서 탄사람같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동무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하지 않았소? 한다든가 동무, 혹시 국방군에서 낙오한 게 아니오? 하면 간이 콩알만큼 오그라들었다. 그러나 오빠는 그들만 나타나면 사색이 되어 떠는 증세가 그런 소리로 더해지거나 덜해지지 않았고,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생긴 실어증도 끝내 그대로여서 불구 노릇에 빈틈이 없었다. 문제는 우리였는데 우리도 오빠가 불구가 된 걸 연기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슬프고 원통한 일이었지만 오빠가 치유될 가망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보위부 군관은 남달리 집요한 데가 있었다.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때론 애원까지 하면서 진상을 알고 싶어 했다.

……(중략)……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 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이노움,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짐승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휘 뿌리쳤다.

“이래도 이래도 바른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쏘 냈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죽기 전에 바른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 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 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출처: 최원식 외, 『고등학교 문학』

[마] [앞부분 줄거리] ‘나’의 가족은 아빠의 직장 때문에 독일의 플라우엔(독일 중동부 작센주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게 된다. 어느 날 아빠의 직장 동료이자 이웃인 베트남인 호 아저씨 가족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친분을 쌓아 간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른들의 말에 동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투이네 식구들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는 척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꽤나 뿌듯하게 생각해 줄 것 같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투의 눈빛을 보냈다. …(중략)… 한국은 선한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어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칭찬받고 싶었다. 난 맞은편에 앉은 아빠에게 인정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넌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 네가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아빠가 한국어로 소리쳤다. 모두들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봤다. 투이네 식구들 앞에서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야단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귀가 먹먹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서 독일어로 말했다.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아무에게도 잘못된 게 없다고, 우리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어.” 투이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얼려 버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이 엄마 가족 모두를 다 죽였다고 했어. 할머니도, 아기였던 이모까지도 그냥 다 죽였다고 했어. 엄마 고향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대.”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힐난하는 말투였지만 나는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략)……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말했다. “응웬 씨가 겪었던 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와 응웬 아줌마에게 고개 숙였다.

“저는 모든 걸 제 눈으로 다 봤답니다. 투이 나이 때였죠.” 그렇게 말하고 호 아저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 아저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힘껏 웃어 보였다. 응웬 아줌마는 호 아저씨에게 베트남어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 말의 진동이 내 마음까지 위로하는 것 같았으니까.

……(중략)……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에 팔을 넣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누가 베트콩*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빠는 여전히 응웬 아줌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태어난 지 고작 일주일 된 아기도 베트콩으로 보였을까요. 거동도 못 하는 노인도 베트콩으로 보였을까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요?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말했다.

응웬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조심히 닫히던 문소리. 나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서재로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다. 엄마는 동생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투이야, 미안하다.” 엄마는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기저귀 가방과 카디건을 들고 엄마를 따라 나갔다.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그 말을 하던 응웬 아줌마의 웃음기 없는 얼굴이 자려고 누운 내 얼굴 위로 떠올랐다. 그 말을 할 때 아줌마는 우리와 다른 곳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아줌마는 내몰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아빠를 설득하려는 말도 아니었고,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 말은 아빠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간,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애써 살아온 응웬 아줌마 자신에 대한 쓴웃음이었던 것 같다. 그녀는 아빠의 태도에 실망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차피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라는 마음이 그날 밤, 아줌마와 우리 사이를 안전하게 갈라놓았다. 그건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도, 서로로 인해 더는 다치고 싶지도 않은 어른들의 평범한 선택이었다.

* 베트콩(Vietcong): 베트남 공산주의자라는 뜻으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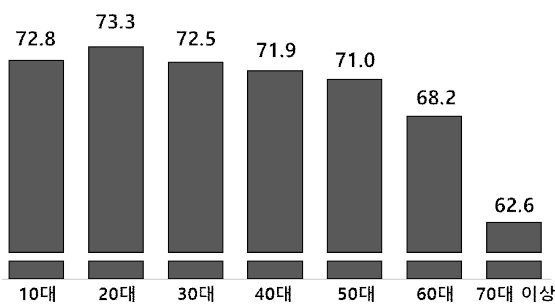
출처: 류수열 외, 『고등학교 문학』

[문제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45점)

- 1) [가]의 (자료1)~(자료4)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나]의 각 세부 관점에 대응하는 [가]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400자 내외) (25점)
- 2)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에서 제시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라]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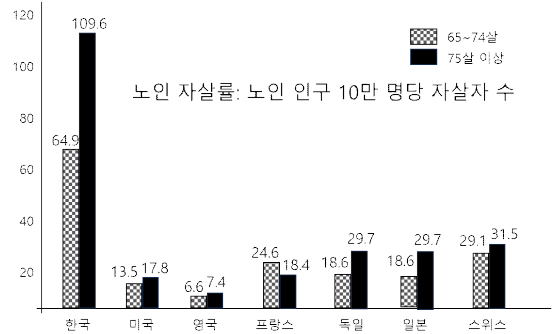
[가] (자료1)

<우리나라 연령대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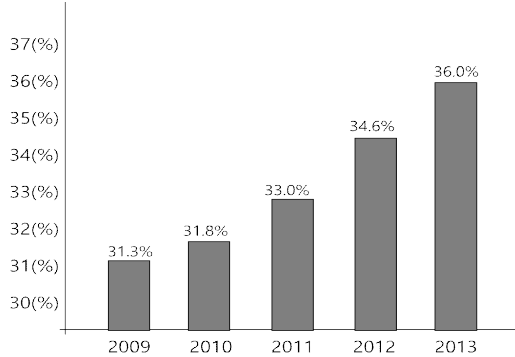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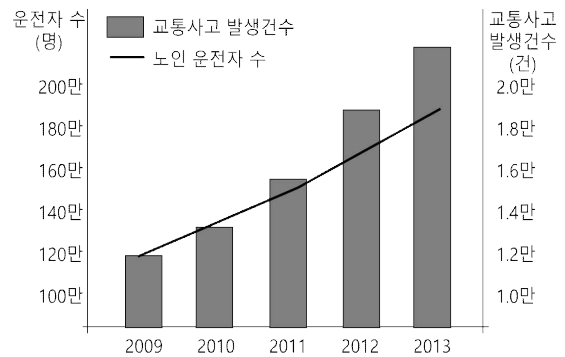
출처: 『국토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



출처: 『경찰청』 (출제진 재구성)

<노인 운전자 수 및 교통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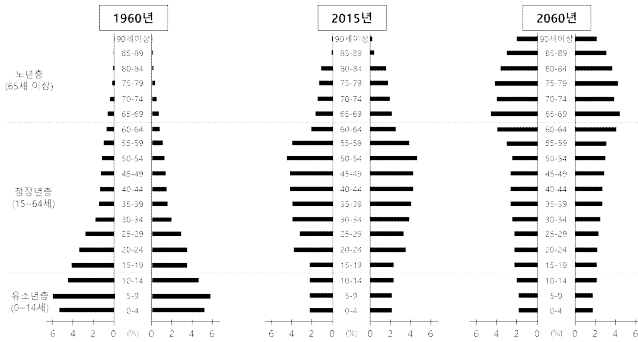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출제진 재구성)

(자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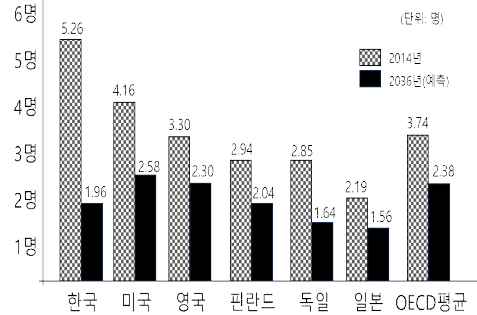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출생률이 높아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컸지만,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206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그래프>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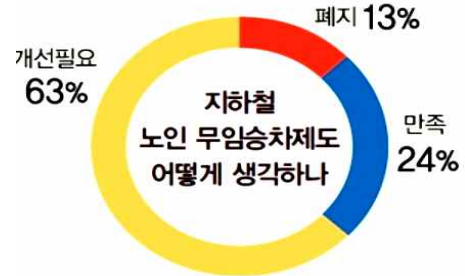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출처: 『OECD』 (출제진 재구성)

(자료3)

<서울 지하철 연도별 무임 수송 현황>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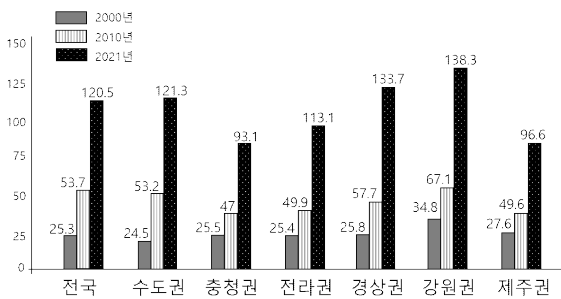
출처: 『서울교통공사』 (출제진 재구성) 출처: 『나우앤서베이』 (출제진 재구성)

(자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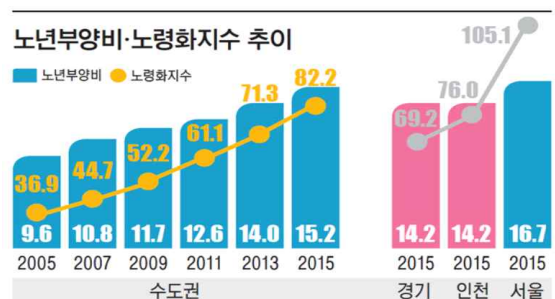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경기도는 노령화지수가 69.2세로 수도권 지수보다 상당부분 낮아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비교적 덜한 모습을 보였다. 합계 출산율에서도 경기도는 1.27명으로 전국 평균(1.24명)과 수도권 평균(1.15명)을 훨씬 웃돌았다.

출처: 『경기일보』, 2016. 11. 10. (출제진 재구성)

<권역별 노령화지수>



<수도권 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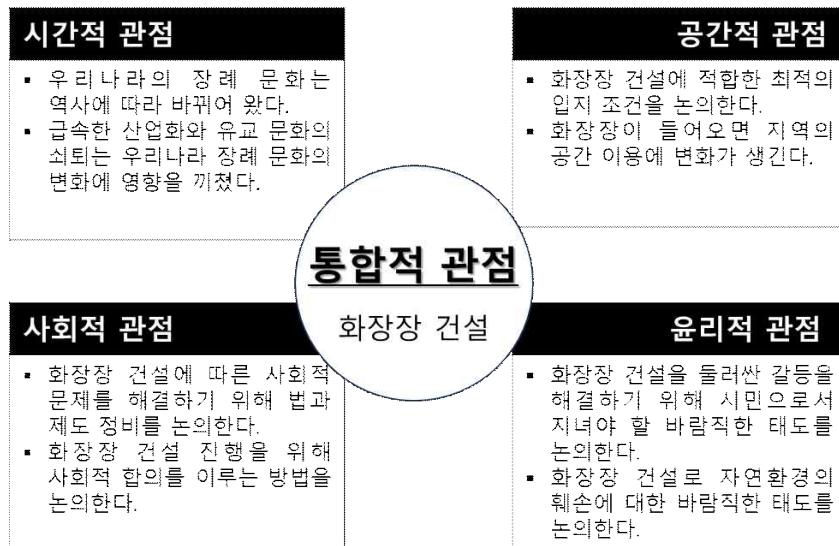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출처: 『경인지방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나] 통합적 관점은 인간의 삶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사회 현상에 담겨 있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각적인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양한 측면에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는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의 세부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통합적 관점의 예시>



출처: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다]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으로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차지) 진입을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임금 체계 개편 연동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경사노위는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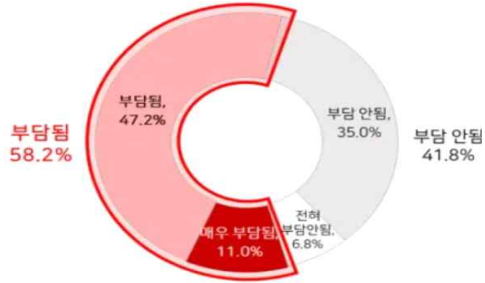
.....(중략).....

경사노위의 지적처럼 정년 연장 이슈에서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건 세대 간 갈등이다. 2017년에도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청년 구직난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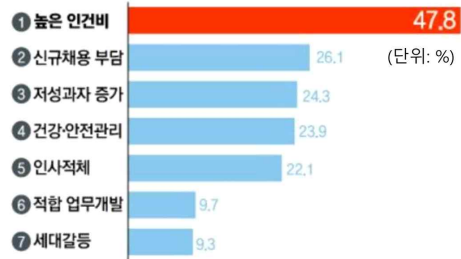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2023. 8. 23.

[라] (자료1)

<60세 초과 정년 연장 부담 여부 -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고령자 인력 관리 어려움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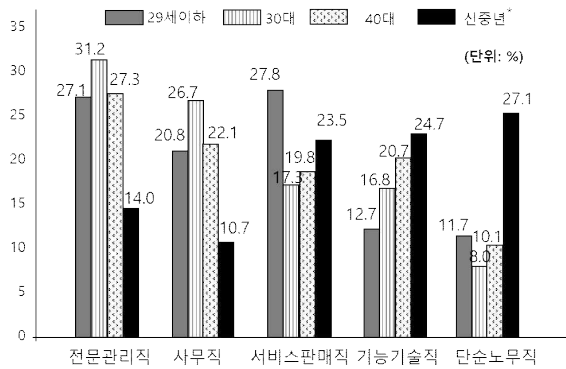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제진 재구성)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출제진 재구성)

(자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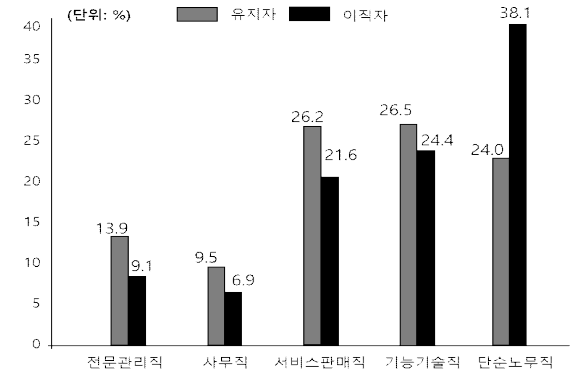
한 전문가는 “고령자 고용률이 늘어난 건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생계형 일자리”라며 “경륜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질 좋은 노년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세계일보』, 2025. 10. 8.

<연령대별 직종 분포>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와 이직자의 직업 분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출제진 재구성)

출처: 『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 신중년: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함.

* 주된 일자리: 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임.

(자료3)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나타냄.

출처: 『보험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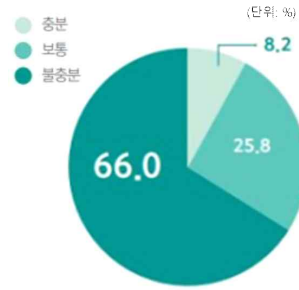
<연령별 은퇴에 대한 대비 정도>

(단위: %)

구분	은퇴 준비에 대한 염려 정도		은퇴에 대한 대비 정도	
	걱정하지 않음	걱정함	준비하지 못함	준비함
전체	23.1	76.9	63.9	36.1
20대	36.1	63.9	71.8	28.2
30대	23.5	76.5	65.3	34.7
40대	15.4	84.6	62.6	37.4
50대	19.1	80.9	56.9	43.1

출처: 『보험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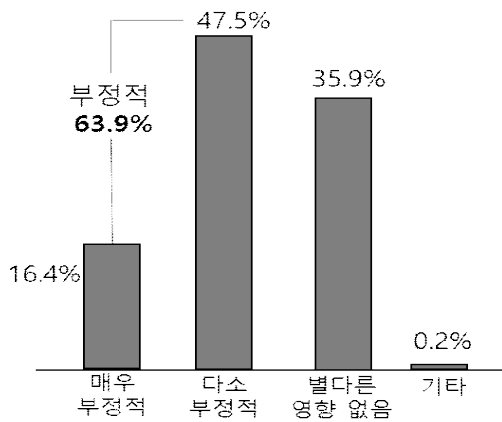
<노후 자금 준비 수준>



출처: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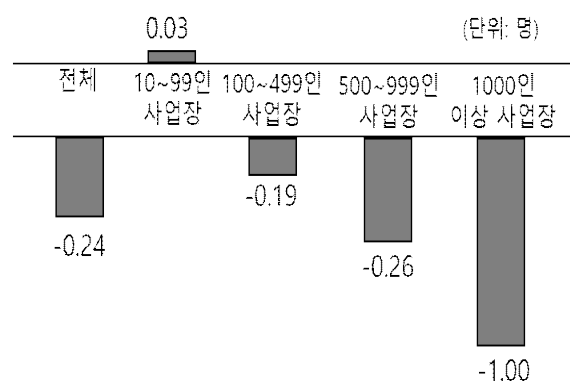
(자료4)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 고용 1인 증가에 따른 청년 고용 변화>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출제진 재구성)